

## 너희는 기록하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개역, 레위기 11:1~8]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개역, 레위기 11:41~45]

### 거룩이 무엇인가?

**언**젠가 거룩이 뭐냐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가끔 '애인지 선생인지' 분간이 잘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폼 잡을 필요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니, 교회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거룩이 뭐냐?'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걸음걸이도 점잖게, 표정도 엄숙하게,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거룩이냐는 말입니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거룩이라면 저는 너무나 거룩이란 것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짙어지니까 성경에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표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없기는커녕 거룩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점잖게 앉아서 폼 잡는 게 거룩인 것 같지는 않으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군에서 훈련을 받는 졸업 시절에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멍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니까요. 화장실 청소도 걸레가 없으면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손으로 다 하고 씻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나중에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밀대를 손으로 빠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밀대 걸레를 물에 적어서 발로 꺾꺾 밟는 것은 준수하고 보통은 물이 뚝뚝 흐르는 것을 그냥 들고 닦으려 갑니다. 물칠을 하는 건지 닦는 건지 분간이 안돼요. 그래서 청소 때면 바닥을 닦는 걸레 짜는 것을 제가 해줬죠.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더러운 걸레를 손으로 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러운 걸레를 손으로 쥐어짜는 것이 거룩에 손상을 끼치는 것도 선생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지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야 간신히 알게 되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룩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고기의 기준은?

본문은 이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의 기준이 뭐니까? 어떤 고기는 못 먹죠? 객관식으로 할까요? 가격이 비싸면 잘 못 먹죠? 가격이 기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맛이 있으면 먹고 맛이 없으면 못 먹고 그러면 맛도 기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하는 것이 뭐니까? 영양가도 있어야지요. 영양가도 있고 비싸

지도 않고 맛도 좋은데 못 먹는 경우도 있죠? 단순한 느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어릴 때 먹어보지 않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못 먹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것 저것 뭇 모르고 먹어놓으면 나중에 잘 먹습니다. 우리가 먹느냐 마느냐 할 때 기준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본문에서 이걸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도 관심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진짜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몸을 생각해서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시적인 몸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만한 것은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조건이네요. 굽이 갈라져야 하고 새김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갈라진 굽 자체가 구별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갈라져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굽만 갈라지면 되는 게 아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김질하는 짐승의 대표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먹어 놓고 조용하면 다시 꺼내서 씹어서 넘깁니다. 사람도 가끔 새김질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던데 별로 이뻐 보이지는 않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김질하듯이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생각을 얹거나 지혜롭지 못해서 사고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 있잖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할머니 차비요?” 합니다. 이 할머니가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아버지 차를 탔는데 내가 차비를 왜 내?” 맞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는 차비를 내야 합니다. 기사가 보기에 세상에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 거예요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이기심만 남아 실수하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 구별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교훈을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에 명하신 것이 뭐죠?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까요?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리시죠.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나? 작전을 가르쳐 주시나? 해 주신 일이 전혀 없어요. 하라고 하신 게 뭐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읽으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다급한 일이 뭐니까?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연구해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단 말이예요.

군대 장수가 전쟁터 막사에 앉아서 전쟁 준비할 생각은 않고 성경책 펴놓고 장수들을 불러서 ‘성경공부 하자’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걱정 안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보여줍니다. 전쟁 준비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기에 적합한 동물은 주로 초식동물이면서 대체로 평화롭게 사는 짐승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짐승은 먹어도 좋다고 함으로, 먹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만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물에서 동하는 것'이란 표현이 있죠? '동하는 것'이란 말은 '물고기가 헤엄쳐서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거나 진흙에 처박혀 사는 놈들도 더러 있거든요.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지느러미의 역할은 물고기가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목표한 곳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심지어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고기들입니다.

반면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체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바글바글 거리면서 사는 물고기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 자리에서 뒹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해 두고 때로는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환경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세속적인 것에 두지 마세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답다는 말입니다.

지느러미가 작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주로 미꾸라지 종류입니다. 미꾸라지나 장어, 메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놈들은 주로 진흙이나 뻘에 처박혀 있거나 생긴 모양이 음흉하죠. 공격적이고 음흉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물고기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깨끗이 죽습니다. 가령 붕어같은 종류는 못에 물이 빠지면 가서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반면에, 미꾸라지는 물이 빠져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못에 물이 다 빠지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논바닥이 찌꺼기 갈라져도 그 밑에 들어가 살아 있습니다.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때로는 몇 년도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기인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물고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 없이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사나요? 아니 그럴 수가 있기는 있습니까? 누군가를 지독하게 사랑해 본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은 다 그냥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도저히 못 견디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떠나는 사람도 더러 있죠.

옛날에 유명했던 팝송도 하나 있죠. *The End of the World*.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세상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태양이 빛나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끝났는데 왜 저 멀리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왜 끝났다고 하죠? '사랑하는 그대가 떠나는 순간에 세상은 끝났는데 왜 저 놈의 태양은 여전히 빛이 나고 왜 파도는 아직도 쳐 오느냐?'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느낄 때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꾸라지의 특징이 살살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맹금류도 하늘을 날 때는 우아하다

13절에서 18절까지 새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새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분류해 보면, 첫째 맹금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 솔개 같은 육식하는 새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매나 솔개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주 우아하죠. 그렇게 우아하게 높은 하늘을 날다가 혹시 밑에 들춰라도 한 마리 보이면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온다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꽂혀요. 혹시 머리 나쁜 매가 실수하고 땅에 박히는 수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나봐요.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먹을 것만 보면 쏜살같이 내려꽂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물도 멀쩡하고 생기도 참 잘 생겼고 그럴 듯해 보이는데 자그마한 이해관계에 따라 무섭도록 돌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애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한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학부형이 담임 선생님께 '학교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안 내줍니다? 준다하데요?' 하더라고요. 절차를 밟으면 학교에서 치료비가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같이 온 다른 학부형의 말이 그 아이가 따로 보험에 든 것이 있어서 보험금으로 30만원을 탔답니다. 치료비는 10만원 들었으니 20만원이 남았답니다. 운동장에서 놀다가 팔 다친 것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제하고 20만원이나 남았으면 됐지, 또 욕심을 내면 도대체 자기 애 팔 부러진 것으로 돈 벌겠다는 얘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보면 멀끔하고 잘 생겼어요. 그런데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언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돈 뿌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누가 옥상에서 만원짜리 막 뿌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뻥히 서 있겠습니까? 뛰어가겠습니까? 뛰어가야죠? 저는 그게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울에만 그런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가 돈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높은데 올라가서 백만원 다발을 풀어서 뿌려 놓고 구경하고 있으면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포항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앉아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뭘 거냐? 아니면 '정신 나간 놈 하나 있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거냐? 그게 만원짜리가 아니고 단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복권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제가 언젠가 "복권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사지도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강도사님 미워죽겠다. 복권 사면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고 싶어 죽겠는데 설교가 생각이 나서 못 샀잖아요!"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백 강도사님이 설교하면서 "복권 산 분 있죠? 당첨 되었더라도 가서 버리세요" 한술 더 뜨고 있더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유유자적하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가 돈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고 온 정신을 다 파는 것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혹시 누가 돈을 뿌리거든 뛰세요. 그래서 가급적 많이 모으세요. 모아서 무얼해요? 도로 갖다 주세요. 정신 좀 차리도록... 세상에 이런 짓을 해서는 인기 끌지 못할,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맹금류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슬프고 피로우세요?**

다음에는 고독하고 슬픈 새가 나옵니다. 고독하고 슬픈 새의 대표라면 올빼미를 들 수 있겠죠? 주로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 사는 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새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어울려서 함께 지내기보다는 혼자 조용한 곳, 외로운 곳에 앉아서 슬픈 표정으로 슬픈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시니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즐겁고 밝은 낮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슬픈 새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가 있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왜 땅에서 기느냐?**

그 다음에 곤충을 봅시다. 21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녀도 땅에 뛰는 발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은데 날개가 있는데 기는 높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 하십니다. 날개가 있는데 왜 기느냐는 말입니다. 설 명이 필요없죠?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날개를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기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었습니까? "난 왜 이렇게 못났냐?", "난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되냐?"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없이 무력하게 사는 것이 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왜 땅에서 기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는 것은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만, 기지 않고 뛰는 곤충은 먹어도 좋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밭을 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붙어서 기지 말고, 뛰어 오르라는 얘 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밭을 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지만 그 땅을 극복하고 살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살되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죠? 안 먹고 살 재주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야죠? 돈 안 벌고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땅에 밭에 디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 살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 맞추어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뛰어 오를 땐 뛰어 오 르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안민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생활 하는 게 번거롭기만 한 겁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하면 사표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적 지 않은데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돈 벌기 위 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만 돈 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 밭을 딛고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뛰는 곤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결혼해야 하나요? 안하면 어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는 건 해야 합니 다. 결혼해서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결혼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 다.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면 참 아름다운 것이 결혼인데 몰라서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려는 분이 꽤 많답니다. 결혼을 하건 않건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 을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다가도 뛰는 것은 먹어도 좋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노력하되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말 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뛰어 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다 부정하니...'라고 합니다.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건 부정하다?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지 않는 짐승 보셨어요? 이 말은 주로 고양이과 짐승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발톱을 숨기고 보드라운 발바닥만으로 살금살금 다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멀리서부터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 까지 살살 갑니다. 소리없이 다가가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힘차게 뛰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 늑대처럼 소리없이 몰래 적에게 접근하는 이런 형태의 짐승은 가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래요? 그런 짐승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만 사람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몰래 접근해서 주변에 함정을 파 놓고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먹는 문제까지 시시콜콜 따지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마라' 한 두 개도 아니 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해놓았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려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 는 것을 따져야 합니다. 먹을 때마다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항상 가려야 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에는

유대인들의 조리법을 따라서 만든 음식을 뜻하는 특별한 마크가 붙어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은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사 먹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불행이라면, 음식 자체에만 신경을 썼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되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얘기하신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 많은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서 그 의도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메기 추어탕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돈해 주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심으로 '먹는 모든 것은 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되새김질을 할 때마다 '우리도 이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지느러미 달린 물고기를 보면서 '이 물고기들처럼 목표를 정해 두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삶, 때로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힘찬 삶, 그렇게 힘껏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매 종류처럼 아주 우아하게 품 잡고 있다가 먹을 것만 생기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특별히 슬픈 새, 올빼미, 까마귀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웬지 모르게 슬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군다나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이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지고도 기기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 섞여 살면 표가 나나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 마디로 하면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오늘부터 점잖게, 헛소리 안하고, 농담도 안하고, 품 잡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만 전부 떨어져 나와서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모래와 설탕가루가 섞여 있으면 구별이 안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거기다 자석을 갖다 대보면 설탕가루만 짝 떨어 올라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짝 빠져 나올, 우리는 설탕가루란 말이죠.

우리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양은 비슷하거나 똑같아 보여도, 자기나 나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설탕가루로서 모래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세하려면 손을 잘 비벼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손비비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괜히 한마디 하려면 아부하는 듯 싶어서 하고 싶은 말도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상사를 보면서 좋은 말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가 높아요. 손도 잘 비비고 아침도 잘 하고 부정한 방법도 잘 씁니다. 그래서 출세가 빨라요. 신앙대로 하면 출세가 빠릅니까? 더딥니까? 대체로 더디죠? 그런데 정도가 아니라면 뒤쳐져서 갈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대체로 안 그렇거든요. 대체로 안 그런 것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부들까지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욕을 얻어 먹든지, 아주 원시인 취급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 미개한 아내와 남편?

요즘은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도 더러 있습니다. 한 때 우스개로 이삿짐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수 옆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조수석예요. 왜요? 버리고 갈까 싶어서... 요즘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록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요즘 여자들 굉장히 썩습니다. 텔레비전 광고할 때 남자 대상으로 하는 것 별로 없어요. 남자옷도 여자를 의식하고 광고합니다. 여자 마음을 못 잡아서 아무 것도 안되는 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며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남편이 아내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이것도 기록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자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바람피운 겁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아니 사실이 그렇다가 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오로지 자기 아내 하나만 목숨걸고 사랑한다면 일반인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기록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 다 쳐놓고 아내만 목숨걸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과 동승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듯이 건널목에 차를 안 세우고 그냥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선 멈춤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이 기록입니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기차도 없는데요? 차를 세우라는 곳에 세우는 것이 기록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를 잘 지킨다고 자랑합니까? 안 지켰다고 자랑합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자랑이 안돼요. "고속도로에서 나는 절대로 100km 이상 달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새 차 빼서 밟았더니 150km, 조금 더 밟으니 180km..." 이게 자랑입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걸 자랑으로 삼고 있는 풍토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지켜도 나는 지키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입니다.

####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도 구별되는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엄숙하게 무게 잡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뽕뽕 뭉쳐서 서로 돕고 잘 사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마을을 떠나서 산속으로 올라가거나 사람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록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분의 뜻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얘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아시지요? 이 거지가 왕자를 쫓 빼달았어요. 그런데 어찌다가 만나서 재미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보지 못한 신하들이 거지하고 노는 왕자를 잡자기 궁으로 데려가고 거지는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궁으로 데려간 게 왕자가 아니고 옷을 바꿔 입은 거지예요.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쫓겨나갔죠. 가짜 왕자는 궁 안에서 아무 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왕자님께서 정신병이 들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궁 안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동안 궁 밖에서는, 행색은 거지지만 진짜 왕자가 혼이 나는 겁니다. '무엄하다'고 호통을 치지만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결국은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도망갔다가 붙들리는 고생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궁궐에서 엉망진창이 되었고 하나는 밖에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결국은 쫓겨났던 왕자가 궁궐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참 재미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자를 정신이 약간 나간 아이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불행한 과거를 가진 기사를 한 사람 만납니다. 미친듯한 애가 자꾸 왕자 행세를 하니깐 이 사람이 농담으로 받아준 겁니다. 농담으로 받아 주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심부름을 다 시키고, 명령도 하는데, 처음에는 농담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신경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아이 아이가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왕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얘기를 하다가 '궁궐에서 내가 잘못

해서 야단맞을 일이 있으면 매 맞는 아이가 대신 맞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진짜 거지나 정신나간 아이 같으면 이런 걸 알 리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 거지가 진짜 왕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사의 도움으로 궁궐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짜 왕자가 왕관을 쓰려는 찰라에 둘이 만나게 돼요. 둘이 만나서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왕자가 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누가 진짜 왕자냐를 뭘로 분간을 하느냐 하면 옥새 가지고 해요. 궁 안에서 옥새를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좋다.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진짜 왕자다’면서 거지인 왕자에게 “옥새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어디 어디 가 보라고 그러는 거죠. 신하가 뛰어 갔다 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놓아두었는데 왜 없느냐는 거죠. “없으니까 가짜 아니냐?” 하는데 진짜 왕자가 가짜 왕자에게 물어요. “야, 네가 거기 놓아둔 것 치웠지?” 그러니까 이 가짜 왕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네모 반듯한 것 맞죠?” “그래, 그것 어떻게 했어?” “호두 까먹으려고 다른 데 감추어 놓았어요” 하는 겁니다.

옥새가 없어지는 바람에 궁중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천지를 모르는 거지가 그걸 다른 데 숨겨 놓고 호두 까먹는데 쓴 거죠. 비슷한 실화가 있기는 있었대요. 거지는 모든 사람들이 왕자라고 떠 받들고 대우를 해줘도 궁궐 안에서 하는 짓이 거지 행세입니다. 그런데 왕자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하는 짓이 왕자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뭐라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왕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박혀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색은 거지일망정 하는 짓은 왕자여야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험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